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의 중국어 교육상황 고찰*

蘇恩希**, 李周娟***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2.1 관공립 교육기관에서의 중국어교육
 - 2.2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중국어교육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일제 강점기 중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문헌상의 자료와 당시 신문에 나타난 언론자료를 근거로 개화기¹⁾에서 191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은 어떻게 도입, 전개 되었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 그 교육목적과 교육상황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로 한국 근대 중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중국어 교육 정책 뿐 아니라 일본의 조선침략과 강점화 과정 및 민족 지식들의 구국운동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리라 짐작된

* 본 논문은 2010년도 숙명여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專攻 副教授

***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卒

1) 개화기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는 시기를 말한다.

다. 아울러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에 거의 황무지와 같은 일제 강점기 중국어교육 실태 연구와 20세기 초 한어사 및 사회문화상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 본론

2.1 관공립 교육기관에서의 중국어 교육

18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은 일본과의 「강화도조약」(1876)을 시작으로 서구 여러 나라들과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881년에 새로운 국가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외교 교섭을 전담할 부서와 외국어 어학연수 및 문헌 번역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였다. 서구 여러 나라들과 접촉이 빈번해지자 의사소통을 담당할 역관 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기존에 있었던 동양 중심의 역관 외국어 교육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²⁾ 그리하여 개항 초기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同文學³⁾(1882)과 育英公院⁴⁾(1886) 등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2)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역관을 양성하였다. 통일신라시기에 이미 역관을 양성하는 관직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고려 시대에는 通文館을 설치하여 漢語를 비롯한 거란어, 여진어, 몽고어, 일본어 등을 교육한 바 있다. 通文館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司譯院으로 개명되었으며 司譯院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폐지될 때까지 역관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정승혜,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제21호, 2002 참고)

3) 通譯學校라고도 하며 1883년 通商衙門에서 有同文學英語學塾을 개설하고 생도를 모집하였다. 同文學은 1882년 한미통상조약 체결 이후 서양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였다가 1886년에 育英公院의 설립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劉奉鎬, 『韓國 教育課程史 研究』, 교학연구사, 1992 p.46.)

4) 育英公院은 각국과의 교섭에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1886년에 정부가 설립한 학교이다. 영어 뿐 아니라 洋學이라는 근대적인 일반 교과도 가르쳤으며 관립학교로서는 최초로 서양적인 근대 문화와 직결된 교육 내용을 가르쳤다는 데 그 교육사적인 의의가 크다. (金英宇, 『韓國 開化期の 教育』, 教育科學社, 1997, pp.492-496.)

최초의 신식 외국어 교육기관인 同文學은 청조말기 1862년 북경에 설립된 최초의 관립 외국어 학교인 중국의 同文館을 모델로 설립한 것이다. 중국의 同文館은 청조가 천진조약과 북경조약 이후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한편, 특히 외국어 습득자의 필요를 통감하였기 때문에 설립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同文學은 통역이나 실무관리를 양성하는데 그쳐, 서양의 학문을 익혀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거나 개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인재양성에는 한계점을 보였다. 同文學의 설립과 교육은 이전 사역원에서 행해지던 외국어 교육이 의도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漢文 위주의 전통 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의 비중과 위상이 다소 높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 능력을 통해서도 관직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문의 독해 및 유교경전의 이해 정도는 평가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育英公院은 영어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 미국의 서구식 교과 편제 하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영어로 기록된 교과서로 공부하였으나, 학생의 신분이 양반고위 관료 자제로 제한되어 이 역시 전통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중국어 수업은 唐紹儀를 중국에서 교사로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어떤 교재로 어떠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인 조류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시작된 외국어 교육은 1890년대에 이르러 더욱 정비되고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에 일어난 갑오개혁⁵⁾으로 정부는 종래의 구교육제도를 새로운 근대적인 교육제도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종은 1895년 5월에 勅令 제88호로 「外國語學校官制」⁶⁾를 제정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일어(日語) (1891)를 비롯한 영어(英語) (1894), 불어(法語) (1895), 러시아어(俄語) (1896), 중국어(漢語) (1897), 독어(德語) (1898) 등의 외국어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外國語學校官制」는 內

5) 갑오개혁은 1894년(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례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 갑오개혁의 정신은 독립협회운동과 계몽운동으로 이어져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6) 『官報』 제36호 1895년 5월 12일

閣總理大臣 朴定陽과 學部大臣이 공포한 것으로 외국어학교 설치에 필요한 設立方法, 敎官 및 職員 등에 관한 定規를 포함하고 있다. 당시 외국어 학교는 “생도를 널리 모집하여 여러 외국의 어학을 교수하는 곳”⁷⁾이었으며, 해당 외국어 외에 “보통학도 교수하며 한문으로 독서, 작문과 본국 역사, 지리도 교수”⁸⁾하였다. 그러나 모두 제11조로 이루어진 이 「外國語學校官制」는 기관의 체제만을 밝히고, 교재 및 교과나 교육내용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중국어 교육기관인 官立漢語學校는 본래 1891년 6월에 설립되어 查以髒라는 교관을 중국에서 초빙하여 중국어를 가르쳤으나⁹⁾, 1894년 淸日戰爭이 발발하면서 잠시 문을 닫았다가, 1897년 5월 典洞에 재설립 되었다. 그 해 6월에는 중국인 胡文華를 교사로 초빙하여 (建陽 2年 6月 2日 外四十四號)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수업연한은 “일어학과 한어학은 3년으로, 영어학, 법어학, 아어학, 덕어학은 5년”¹⁰⁾으로 정하였으며, 일어학과 한어학은 1902년 3월 4일 學部令 제14호 「外國語學校 規則 改正」을 통해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¹¹⁾ 입학 연령은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자”로 특별한 학력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들 외국어 학교는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기관이긴 하였지만 당시 전문학교, 대학교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준이 높은 학교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수업은 외국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어학교는 종래의 중국어 교육과는 달리, 한국 근대화시기에 여러 외국어를 국민들에게 접하게 하고,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당시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취직이 용이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다른 보통학교에 비해 비교적 학생

7) 1895년 5월 10일 勅令 제88호 「外國語學校官制」 제1조 (『官報』 제36호 1895년 5월 12일)

8) 1900년 6월 27일 學部令 제11호 「外國語學校規則」 제1조 (『官報』 제1615호 1900년 7월 2일)

9) 官報 統記 第28 高宗 28年 辛卯 6月 2日條. 同上書 第30 11月 15日・23日條, 同上書 第35 30年 3月 11日條

10) 1900년 6월 27일 學部令 제11호 「外國語學校規則」 제3조 (『官報』 제1615호 1900년 7월 2일)

11) 1902년 3월 4일 學部令 제14호 「外國語學校規則改正」 제3조 (『官報』 제2140호 1902년 3월 6일)

수가 많았다.¹²⁾ 입학생은 국문과 한문으로 독서와 작문 시험을 보았으며¹³⁾, 재학 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학력을 검정”하는 시험을 보았고 “겨울 도강에 한 학기 학력을, 여름 도강에 1년 학력을 검정”하는 시험을 보았다.¹⁴⁾ 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우등생은 상장과 진급장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여름 도강 우등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을 주고 관보에 광고하기도 하였다.¹⁵⁾ 반면 여름·겨울 도강을 거쳐 평점이 가장 적은 자는 교사, 교관, 부교관이 협의하여 낙제시키기도 하였다.¹⁶⁾ 이렇게 졸업한 외국어 학교의 졸업생은 해당 외국어 학교의 교관이 되거나 일자리를 찾아 사회로 진출하였다.¹⁷⁾

그러나 이들 외국어 학교는 1905년 을사조약¹⁸⁾ 이후 일본에 의해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

이후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그 해 8월 27일 「外國語學校令」(勅令 제43호)과 「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學部令 제22호)¹⁹⁾을 공포하여 외국어 교육에 대

12) 학부는 외국어학교에 다니는 “생도에게 재학동안 교과서를 빌려주고 필요한 지필묵을 지급”하였다. (學部令 제11호 「外國語學校規則」 제1관 제4조) 또한 6개 외국어학교 하기사험의 우등생 73명을 본부로 불러 진급장을 수여하는 동시에 상품으로 鑿鐘, 우산, 만국지지, 대한지지, 칼, 연필, 지도 및 공책 등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皇城新聞, 1900년 07월 07일) 졸업식에 각 부대신이 참석하는 한편 (皇城新聞, 1900년 07월 14일), 1901년 정월에는 교종이 친히 각 외국어 학교 교사들을 궁중으로 불러 알현하고 궁내부에서 宴待를 베풀기도 하였다. (皇城新聞, 1901년 01월 21일)

13) 1900년 6월 27일 學部令 제11호 「外國語學校規則」 제4관 제3조 (『官報』 제1615호 1900년 7월 2일)

14) 1900년 6월 27일 學部令 제11호 「外國語學校規則」 제5관 제1조 (『官報』 제1615호 1900년 7월 2일)

15) 1900년 6월 27일 學部令 제11호 「外國語學校規則」 제5관 제2조 (『官報』 제1615호 1900년 7월 2일)

16) 1900년 6월 27일 學部令 제11호 「外國語學校規則」 제5관 제3조 (『官報』 제1615호 1900년 7월 2일)

17) 당시에는 외국어 학교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비교적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를 떠났고, 이로 인해 외국어학교의 교관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勅令 제40호로 「外國語學校·醫學學校·中學校 卒業人を該學校에 收用하는 件」을 공포하여 외국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졸업과 동시에 모두 서임하였다가 교관 결원이 생기는 경우 특별시험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였다.

18)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 『官報』 제3546호 1906년 8월 31일

한 간섭을 시작하였다. 외국어 학교의 교육목적을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제1조)에 두고 수업 연한을 “본과 3년, 연구과 2년”(제5조)으로 단축하는 한편 입학 자격도 “12세 이상의 남자”(제6조)로 제한하였다. 이는 종래의 외국어학교가 해당 외국어와 더불어 보통학도 교수한 것에 비해 이 시기에 이르러 실용적인 목적이 더욱 가미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그 목적이 실무자 양성에 있었으므로 교육 연한도 함께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결국 1907년 12월 31일 통감부는 각 학교 명칭을 「官立漢城外國語學校」로 단일화하고, 마쓰지 주소를 전체 외국어학교장으로 임명하여 관립일어학교를 확장해 다른 외국어 학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²⁰⁾ 그 후 1907년 7월 24일에 제3차 한일협약²¹⁾이 체결된 이후 결국 학교의 관리 및 운영의 실권이 완전히 일본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²²⁾ 이로써 모든 외국어 학교가 주관적인 의지가 아닌 시대적 요구와 상황으로 인해 그 흥망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4월 19일에는 勅令 제53호로 「外國語學校令 改正」을 공포하여 교과서에 관하여 “외국어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나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제6조의 2)”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²³⁾ 이처럼 일본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부는 같은 해 7월 5일에 學部令 제5호로 「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²⁴⁾을 공포하여 1906년의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學部告示 제14호 「官立漢城外國語學校學則」²⁵⁾을 제정하여 학교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학과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를 고시하였다. 이를 통해 漢語部에서는 총 수업시간(94시간) 중 중국어 학습에 50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44시간은 기타 과목 수업을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20) 『官報』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 56호 <학부직할학교직원정원령개정>

21) 『官報』 號外2 1907년 7월 25일

22) 제3차 한일협약 제5조에서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해 9월 28일에는 외국어 학교 등의 졸업생을 그 학교에 임명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官報』 제3553호 1906년 9월 8일) 또한 이듬해부터는 학교장과 교수 및 조교수까지도 일본인으로 임명되어 학교의 운영과 관리의 실권이 일본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官報』 제3970호 1908년 1월 14일)

23) 『官報』 제4355호 1909년 4월 20일

24) 『官報』 제4424호 부록 1909년 7월 9일

25) 『官報』 제4512호 1909년 10월 23일

있다. 특히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절반인 25시간을 글자 익히기 및 독해(學話)에 할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회화에 배분된 시간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듣기 수업(書取), 발음지도 및 교정(證音, 四聲) 수업, 한중·중한 번역수업(反譯), 표점 찍기 수업(句讀法), 문법 익히기(文典) 수업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통한 근대 중국어교육이 막 시작된 까닭에 아직 시청각 수업이나 문화 지도 수업 등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과목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수학 과목이었는데 교육 내용은 “사칙 및 소수, 분수, 비례” 등으로 소학교 수준의 간단한 산수 과목에 불과했다.²⁶⁾ 이와 같이 官立漢城外國語學校에서는 해당 언어로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번역 등을 가르쳤을 뿐 아

26) 學部告示 제14호 「官立漢城外國語學校學則」에 수록된 漢語部の 학과과정 및 매주 수업시수 표는 다음과 같다.

學科		學年		第 1 學年		第 2 學年		第 3 學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修身		1	實踐道德	1	全上	1	全上		
漢語	學話	10	日常須知의 文字及普通語	10	全上	5	全上		
	會話	1	學話를 準數할	1	全上	3	全上		
	書取	1	學話를 準數할	1	全上	2	全上		
	反譯	2	韓文漢譯 漢文韓譯	2	全上	2	全上		
	四聲	1	圈四聲	1	編四聲	2	全上		
	讀法					1	句讀法		
	證音	1	普通字音	1	全上				
	文典			1	日常語法及 文典	2	全上		
國語及漢文		3	講讀作文	3	全上	3	全上		
數學		5	四則	5	全上及小數	5	分數及比例		
歷史地理		2	本國歷史 本國地理	2	全上 全上	2	全上 外國地理		
理科				1	博物生理	1	物理化學		
體操		3	學校體操	3	全上 全上	3	全上		
隨意科	日語			(2)	假名及 簡易口語文	(2)	簡易口語文		
計		30		32 (2)		32 (2)			

나라 독서와 작문, 역사 및 지리, 이과, 체조 등과 더불어 일어를 수의과목으로 가르쳤음도 알 수 있다.

官立漢城外國語學校의 시험은 學期試驗과 學年試驗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學期試驗은 제1학기과 제2학기 사이에 보았고, 學年試驗은 학년말에 보았다. 평소 성적과 시험 성적을 1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당 4점 이상, 총 평균 6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었으며, 통과한 사람에게 한해 卒業證書를 수여받게 되었다.²⁷⁾ 이렇게 졸업한 漢語部 학생들은 청나라를 상대로 하는 무역상이나 일반 상점에서 일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업과정이 문서 실무 능력과 간단한 산수에 정통할 수 있도록 짜여 있었으며, 이것은 官立漢城外國語學校의 목적인 “외국어에 숙달하여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²⁸⁾ 한다는 것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까닭에 졸업생 중 상당수가 대청무역상이나 상점에서 일하였으리라 짐작되며, 그 밖에 졸업생 중 일부는 모교의 교관이 되거나 기타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²⁹⁾

그러나 官立漢城外國語學校 마저도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당시 통감부의 일본어중시 정책 및 일제의 조선 침략 강화의 명목으로 1911년 11월 1일에 폐교되었다.³⁰⁾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고등보통학교에 영어를 隨意과목으로 두는 것 이외에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어를 비롯

27) 1906년 8월 27일 學部令 제22호 「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 제26조~제28조 (『官報』 제3548호 1906년 9월 3일)

28) 1909년 10월 20일 學部告示 제14호 「官立漢城外國語學校學則」 제1조 (『官報』 제4512호 1909년 10월 23일)

29) 漢語學校의 졸업생 중 申畧休 (제2회 졸업생)는 會社事務員이 되었으며, 吳圭信 (제2회 졸업생), 柳廷烈 (제2회 졸업생)은 모교 副教授로 채용되었다. 또한 私立學校 教師가 된 자는 林國承 (제3회 졸업생), 鄭完時 (제4회 졸업생), 崔鳴淳 (제5회 졸업생), 張義煥 (제6회 졸업생) 등이 있다. 그 밖에 吳克善 (제1회 졸업생)이 突山郡守로 채용되었으며, 金永甲 (제2회 졸업생)이 侍從院侍從로, 宋秉憲 (제4회 졸업생)이 度支部技手로, 徐廷俊 (제4회 졸업생)이 巡查在動로, 李敏應 (제6회 졸업생)이 學部書記官로 채용되는 등 여러 명이 관직을 얻었다. (官立漢城外國語學校 編, 『官立漢城外國語學校一覽』, 京城: 官立漢城外國語學校, 1909(隆熙3), pp.57-59.)

30) 官立漢城外國語學校는 學部에 의해 1910년 3월 22일자 學部告示 제7호를 기준으로 '임시토지조사기술원양성소를 부설' (『官報』 제4635호 1910년 3월 24일)하고 결국 1911년 11월 1일부로 폐교되었다. (『官報』 제342호 1911년 10월 16일)

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외국어 교육의 길을 막았다. 일제가 외국어 교육을 막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하기 위함이었 고, 다른 하나는 日鮮同祖論에 입각하여 한국인을 정서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다 른 외국어 보다 일본어를 최우선적으로 보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제는 日鮮同祖論에 입각한 ‘차별화’된 동화주의를 목표로 삼고, 교육에 있어서 일본어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이것은 제1차 조선교육령 제5조에서 “보통 교육은 보 통의 지식 기능을 교수하고, 특히 국민 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 으로 한다.”³¹⁾라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11년 11월 1일 이후 관공립 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중국어 교육 또한 잠시 중단되었다. 관공립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32년 고등보 통학교 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³²⁾

2.2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중국어 교육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문물을 개방하게 되면서 외국어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어 구사 능력이 큰 역 할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 으며 그 수요에 따라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이 많이 설립되었다. 민간에서 이루어진 사설교육기관으로는 사립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 가 있다.³³⁾ 중국어 교육은 이들 사설교육기관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 중국어 사설교육기관 관련 신문 기사를 교육 단체를

31) 1911년(明治 44년) 8월 勅令 제229호

32) 일제는 1932년 개정된 고등보통학교 교과과정에 ‘公民科’를 새로 신설하면서 외국어과에 영 어, 독어, 불어 외에 지나어를 추가하여 가르치도록 하였다. (朝鮮總督府訓令 제9호, 「中學校及 高等普通學校規程中改正に關する訓令」, 『官報』 제1506호 1932년 1월 18일) 그 이유는 “최근에 중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1932년 1월 17일)

33) 사립학교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에서 설립·경영하였다는 점에서 위 의 관공립 학교와 대비된다. 또한 사설학술강습회는 주로 야간에 강습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夜學이라고도 부르며, 근대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중심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의 중국어 사설교육기관 현황

야학명	주최 및 설립자	장소	교사	교과목	출전
漢語夜學	漢語學校 學員 김완규	水河洞 소학교 內	김완규	漢語	독립신문 1899-05-22
私立 光成學校		南門內尙洞 地 私立光成 學校		商業學 專門	皇城新聞 1900-02-05
普興學校	충북 堤川郡 유지			法語 日語 漢文 算術	皇城新聞 1906-04-10
漢語夜學	漢語卒業教官 李命七, 前主事 崔崙源	典洞 官立 漢語學校 內		漢語 算術	皇城新聞 1906-03-28 皇城新聞 1906-10-19
廣化新塾				日語 漢語 英語	대한매일신보 1906-09-06
中東學校	校長 吳世昌		柳光烈 (漢語) 朴在肅 (日語)	漢語 算術 日語	皇城新聞 1907-01-07 대한매일신보 1908-10-30
				漢語 算術 日語 簿記	皇城新聞 1910-09-08

巡洞 私立小學校				日語 漢語	대한매일신보 1907-02-28
야학명	주최 및 설립자	장소	교사	교과목	출전
東洋校夜學			시미드즈	淸語 日語	해조신문 1908-02-26 해조신문 1908-03-19
靑館 漢語講習		鐘路 靑年會 學館 內 漢語 夜學講習所	金佑行		皇城新聞 1910-02-24 대한매일신보 1910-02-27
皇城基督教 靑年會		皇城 基督教 靑年會學館			皇城新聞 1910-08-16
三語夜學	光成學校 교원	平壤 南山峴 私立 光成學 校		日語 英語 漢語	매일신보 1914-09-02
四民夜學會	會寧四民學會	會寧		日語 漢語 漢文 算術	매일신보 1917-03-14
靑年夜學會	감리교회	평남 평양 청 년 야학회관		漢語 日語 英語	매일신보 1919-01-04

위의 표를 근거로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의 중국어 사설교육기관에 대해 시기별로 살펴보면 1899년 최초의 중국어 야학이라고 할 수 있는 漢語夜學이 설치되었으며 1900년에는 사립 光成學校에서 商業學專門 과목과 함께 중국어를 교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普興學校(1906), 廣化新塾(1906), 中東學校(1907), 巡洞私立小學校(1907), 東洋校夜學(1908) 등의 사립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漢語學校 내에 부설된 私立漢語夜學(1906)이 운영되고 있었다.³⁵⁾ 그러나 1908년 8월 26일 勅令 제62호로 「私立學校令」이 공포된 이후에는 光成學校의 三語夜學(1914)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에서의 중국어 야학은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교육주체가 청년회(靑館漢語講習 1910)나 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教青年會 1910, 青年夜學會 1919), 일반 야학회(四民夜學會 1917)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官立 漢城外國語學校의 학원 및 교원들이 사립야학을 설립한 점이다. 1899년의 漢語夜學은 漢語學校 학원 김완규가 명예 교사로 수하동 소학교에 설치한 것이며³⁶⁾, 1906년의 漢語夜學도 典洞에 있는 官立漢語學校 내에서 敎官들이 직접 사립야학을 개설하고 중국어를 교수한 것이다.³⁷⁾ 또한 1906년 12월에 개교식을 거행한 中東學校는 官立漢城漢語學校 내에 설치한 漢語夜學이 그 전신이며 1906년 봄에 學部の 인가를 얻어 설립한 것이다.³⁸⁾ 이처럼 관립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원들이 학교 내에 사설야학을 설치한 이유는 당시 민간에서 단기간에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있으면 취직이 용이하였고 그러한 까닭에 학업 자체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았다. 때문에 중국어를 배

34) 商業學專門 교과목으로는 算術, 簿記, 日清語, 商業學, 經濟學, 貨幣論, 商工, 歷史地理, 銀行論, 商法, 國際法, 財政學, 內國地理, 貿易實務 등이 있다. (皇城新聞, 1900년 02월 05일)

35) 漢語夜學은 정부에서 세운 漢語學校내에서 이루어진 중국어 교육이지만, 정부가 아닌 漢語學校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私立夜學을 세운 것이므로 사설학술강습회로 분류하였다. (皇城新聞 1906년 10월 19일)

36) 독립신문 1899년 5월 22일

37) 皇城新聞 1906년 10월 19일

38) 皇城新聞 1907년 1월 7일

우는 데 3~4년의 시간을 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에는 漢語學校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을 얻는 자가 많았다.³⁹⁾ 그리고 1906년의 漢語夜學과 中東學校에서 중국어와 함께 算術을 가르쳤다는 것만 보아도 이들의 설립목적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이처럼 초기의 중국어 아학은 경제적인 이유와 무관하지 않게 설립되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예로 南門內尙洞地에 위치한 私立 光成學校(1900)를 들 수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日淸語를 비롯하여 상업·무역 관련 다양한 교과목을 晝·夜學으로 개설하고, “취업(實業)에 뜻이 있는(有志)”⁴¹⁾ 학생들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민족 구국운동을 위한 목적에서도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 되자 선각자들은 더 이상 무력 투쟁이나 정치 활동을 통한 국권수호투쟁으로는 국권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교육 계몽운동으로써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선각자들은 전국적으로 민족계 사립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들 학교 중에는 중국어를 가르친 학교도 있었다. 普興學校⁴²⁾ (1906), 廣化新塾⁴³⁾ (1906), 中東學校⁴⁴⁾ (1906), 巡洞私立小學校 (1907)⁴⁵⁾ 등이 그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민족 독립 운동을

39) 古川 昭 著, 李成鈺 譯,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景仁文化社, 2006, p.266.

40) 皇城新聞 1906년 3월 28일,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30일

41) 皇城新聞, 1900년 02월 05일

42) 충북 제천군 유지들이 1906년 3월에 설립한 普興學校는 법어·일어·영어·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가르쳤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03월 02일)

43) 1906년 4월에 영어·일어·법어를 속성전문과로 가르치고(대한매일신보, 1906년 04월 08), 동년 9월부터는 일어와 중국어를 晝學으로, 영어는 夜學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09월 06일)

44) 典洞 中東學校는 1906년 봄에 漢語夜學으로 개설되어 중국어만을 가르치다가 동년 12월에 중등학교로 개명된 본교에서는 중국어와 일어를 가르쳤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01월 05일) 또한 算術科를 개설해서 1908년 10월에는 算術科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30일)

45) 巡洞에 설치된 私立小學校에서는 日·漢양과를 두고 일본어와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쳤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02월 28일)

위한 목적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⁴⁶⁾ 당시 많은 민족운동자들은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망명하여 항일민족운동 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닦고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이주 한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간도 지역에서는 민족 지도자들이 그곳을 항일 운동의 세력 근거지로 삼고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⁴⁷⁾ 그러한 까닭에 민족정신이 투철하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까닭에 민족계 사립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1908년 8월 26일 勅令 제62호로 「私立學校令」을 공포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함에 따라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일본은 근대적 사회에 대한 자각과 외세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생겨난 민족계 사립학교가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私立學校令」을 근거로 사립학교를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2조)”⁴⁸⁾고 하면서 제9조와 제10조를 근거로 學部大臣이 사립학교에 대한 억압과 폐쇄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에 많은 사립학교가 일본의 황포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으며, 교육에 뜻이 있는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웠던 야학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私立學校令」 공포 이후 설립된 중국어 야학으로는 종로 청년회관에서 이루어진 靑館 漢語夜學(1910)과 황성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이루어진 황성기독교 청년회 야학(1910), 私立 光成學校 교원들이 학교 내에 사설로 개설한 三語夜學(1914), 會寧의 四民夜學會(1917), 평양 기독교 청년회의 青年夜學會(1919)가 있다. 이 시기 야학의 특징은 주최 단체의 상당수가 청년단체라는 점이다. 이는 1905년 을사조약

46) 이 중에서 민족 독립에 열의를 가졌던 대표적인 학교로 中東學校와 光成學校를 들 수 있다. 中東學校는 1906년 12월 28일에 개교식을 거행하면서 ‘개교식 말미에 교장 이하 모든 교원과 학생들이 만세 삼창’(皇城新聞, 1907년 01월 07일)을 하였으며, 光成學校는 민족 해방운동에 앞장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光成學校 졸업생 중에는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감옥에 투옥됐던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金昌俊 목사가 대표적이다. (동아일보, 1922년 01월 27일)

47)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만주·러시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29-32.

48) 1908년 8월 26일 勅令 제62호로 「私立學校令」 제2조 (『官報』 제4165호 1908년 9월 1일)

이후 교육 계몽운동으로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선각자들과 청년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야학은 청년회관을 이용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교사가 되어 교육하면 비교적 쉽게 설립·경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청년회에서 야학을 통해 민중 교육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에는 중국인 양계초의 사상이 애국 계몽운동을 하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의 사상에 대한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⁴⁹⁾ 이를 통해 당시 청년회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목적은 민족 구국 운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다만 會寧에서 이루어진 四民夜學會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당시 會寧은 중국과 근접한 지역으로 경제·무역의 중심지였다. 특히 四民夜學會에서 야학을 개설하였던 1917년에는 일본이 淸津과 會寧을 잇는 淸會鐵道를 개통하면서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⁵¹⁾ 이처럼 철도 개통으로 會寧에서 한국·중국·일본의 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會寧의 四民夜學會에서 “1년에 250원씩 야학교 경비에 투자하면서 학회 내에 야학교를 설립하고 농촌 일반 청년에게 日語, 淸語, 漢文, 算術을 교수”⁵²⁾한 것으로 보인다.

49) 양계초는 1902년 요코하마에서 「신민총보」를 창간한 후 창간호부터 제72호(1906년 3월)까지 전후 26회에 걸쳐 '신민설'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근대 중국의 지성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양계초의 사상은 애국계몽운동시기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예컨대 1907년 안창호, 신채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는 양계초가 제창한 신민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단체였다. (김현영, 김봉철, 박구병, 김웅중, 구범진 저, 『인문학자들이 뽑은 세계사 인물 오디세이』, 서해문집, 2010.)

50) 당시 중국어 야학을 개설하였던 청년회 중에서 1903년 10월 28일에 교육과 계몽, 선교에 그 목적을 두고 창립된 皇城基督教青年會는 감옥에서 전도 받은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기독교 교육 뿐 아니라 민족 교육에도 앞장서게 되었다. 실제로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국민교육회, 대한구락부 등의 단체와 더불어 일진회의 매국적 행위를 규탄하였으며, 1907년 6월 헤이그밀사 사건의 주동 인물 중에는 皇城基督教青年會 관계자들이 많았다. (이은숙, 「皇城基督教青年會의 창립에 관한 일고찰」, 숙명여대대학원, 1990, pp.49-57.)

51) 일본은 대륙 침략과 경제 수탈의 목적으로 1917년에 淸津에서 두만강 邊界인 會寧에 이르는 淸會鐵道를 개통하였다. 淸會線의 개통으로 인해 淸津에서 會寧까지의 운송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間島 邊界로부터 조선내지까지의 교통문제가 해결되었다. (禹英蘭 著, 『中韓邊界貿易史 研究 : 1910~1954年 '間島'邊界貿易을 中心으로』, 新星, 2004, p.112.)

52) 매일신보 1917년 3월 14일

한편 이러한 사실 교육 기관에서도 어떤 교재로 어떻게 중국어 수업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3. 나오는 말

본 논문은 역사, 문헌상의 자료와 개화기에서 1910년대 까지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해조신문, 매일신보에 발표된 언론자료를 근거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근대 중국어교육의 도입과 전개과정 및 그 교육목적과 교육상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개화기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외국어학교는 한국 근대화 시기에 국가차원에서 여러 외국어를 국민들에게 접하게 하고, 그들의 문물을 접하고 문화를 수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어 교육은 漢語學校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어 교육기관인 官立漢語學校는 본래 1891년 6월에 설립되어 查以勳라는 교관을 중국에서 초빙하여 중국어를 가르쳤으나, 1894년 淸日戰爭이 발발하면서 잠시 문을 닫았다가, 1897년 5월 典洞에 재설립 되어 그 해 6월에는 중국인 胡文華를 교사로 초빙하여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설립 초기 수업연한은 3년이었으나 1902년 3월 4일 學部令 제14호 「外國語學校規則 改正」을 통해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입학 연령은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자로 학력규정은 두지 않았다.

관립한어학교는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기관이긴 하였지만 당시 전문학교, 대학교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준이 높은 학교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수업은 중국에서 교사를 초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어, 영어, 불어 등 여러 외국어 교육과 함께 시대적 조류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중국어 교육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더욱 정비되고 강화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교육 연한이 단축되고 교육 정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그 해 8월 27일 「外國語學校令」을 공포하며 모든 학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통일하고, 이전 독립 운영되던 학교를 학교장 겸임을 가능케 하여 학생선발권, 출학명령권, 징계권, 학교세직제정권을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간섭은 한층 심화되어 한국의 재외공관 폐지, 주한 외교사절 퇴거 등 모든 분야의 대외활동이 제약을 받아 외국어학교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다. 결국 1907년 12월 31일 통감부는 외국어 학교를 통합하여 “官立漢城外國語學校”로 단일화 하였다. 官立漢城外國語學校 漢語部에서는 중국어로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번역 등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독서와 작문, 역사 및 지리, 이과, 체조 등과 더불어 일어를 수의과목으로 가르쳤다. 漢語部에서는 총 수업시간(94시간) 중 중국어 학습에 50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44시간은 기타 과목 수업을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절반인 25시간을 글자 익히기 및 독해(學話)에 할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회화에 배분된 시간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듣기 수업(書取), 발음지도 및 교정(證音, 四聲) 수업, 한중·중한 번역 수업(反譯), 표점 찍기 수업(句讀法), 문법 익히기(文典)수업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통한 근대 중국어교육이 막 시작된 까닭에 아직 시청각 수업이나 문화 지도 수업 등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유일한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이었던 官立漢城外國語學校 마저도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당시 통감부의 일본어중시정책 및 일제의 조선 침략 강화의 명목으로 1911년 1월 11일에 폐교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이후 일제 강점기 제2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던 1932년까지 관공립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중국어 교육이 잠시 중단되었다. 반면 사설교육기관인 야학과 사립학교에서는 중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기 중국어 사설교육기관은 경제적인 이유로 설립되었으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민족 구국 운동을 위한 목적에서도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민족계 사립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08년에 「私立學校令」이 공포된 이후에는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려워

져 상대적으로 설립이 간편했던 야학으로 활동 무대가 옮겨지게 되었다. 특히 1910년에는 청년단체들의 중국어 야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야학을 통해 교육 계몽운동을 펼쳐 나갔다. 한편 일본이 대륙침략의 목적과 경제 수탈의 목적으로 1917년에 淸會鐵道를 개통하면서부터는 會寧에 경제 활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야학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역사, 문헌상의 자료와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해조신문, 매일신보, 관보 등에 발표된 언론자료를 근거로, 한국 개화기에서 1910년대 까지 이루어진 근대 중국어교육의 도입과 전개과정 및 그 교육목적과 교육상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로는 이 시기에 중국어 교육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범제화 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 발굴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古川 昭 著, 李成鈺 譯,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景仁文化社, 2006.
 官立漢城外國語學校 編, 『官立漢城外國語學校一覽』, 京城: 官立漢城外國語學校, 1909.
 金英宇, 『韓國 開化期の 教育』, 教育科學社, 1997.
 김현영, 김봉철, 박구병, 김웅중, 구범진 저, 『인문학자들이 뽑은 세계사 인물 오디세이』, 서해문집, 2010.
 禹英蘭 著, 『中·韓邊界貿易史 研究: 1910~1954年 '間島'邊界貿易을 中心으로』, 新星, 2004.
 劉奉鎬, 『韓國 教育課程史 研究』, 교학연구사, 1992.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 -만주·러시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은숙, 「皇城基督教青年會의 창립에 관한 일고찰」, 숙명여대대학원, 1990.
 정승혜,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제21호, 2002.

- 『官報』 統記 第28 高宗 28年 辛卯 6月 2日條
『官報』 統記 第30 11月 15日・23日條
『官報』 統記 第35 30年 3月 11日條
『官報』 제36호 1895년 5월 12일
『官報』 제1615호 1900년 7월 2일
『官報』 제2140호 1902년 3월 6일
『官報』 제3546호 1906년 8월 31일
『官報』 제3548호 1906년 9월 3일
『官報』 제3553호 1906년 9월 8일
『官報』 號外2 1907년 7월 25일
『官報』 1907년 12월 13일, 勅令 제 56호
『官報』 제3970호 1908년 1월 14일
『官報』 제4165호 1908년 9월 1일
『官報』 제4355호 1909년 4월 20일
『官報』 제4424호 부록 1909년 7월 9일
『官報』 제4512호 1909년 10월 23일
『官報』 1911년(明治 44년) 8월 勅令 제229호
『官報』 제342호 1911년 10월 16일
『官報』 제1506호 1932년 1월 18일
『독립신문』 1899년 5월 22일
『皇城新聞』 1900년 2월 5일 , 1906년 3월 28일 , 1906년 4월 10일 , 1906년 10월 19일 ,
1907년 1월 7일 , 1910년 2월 24일 , 1910년 8월 16일 , 1911년 9월 8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6일 , 1910년 2월 27일 , 1907년 2월 28일 , 1908년 10월 30일
『해조신문』 1908년 2월 26일 , 1908년 3월 19일
『매일신보』 1914년 9월 2일 , 1917년 3월 14일 , 1919년 1월 4일

<中文提要>

本論文以文獻資料及開化期到1910年代發表的獨立新聞,皇城新聞,大韓每日新聞的資料為依据,對韓國近代化時期漢語教育的導入,展開過程與相關背景進行考察。

根據研究考證進入開化期之後韓國為了培養外語人才,政府着手建立了外語學校,漢語教育正式在漢語學校中進行。但是1905年乙巳條約簽定後,在日本帝國主義侵略的外患之下,1907年外語學校合併為「官立漢城外國語學校」。1910年韓日合併之後,唯一的官立教育機構官立漢城外語學校也因為第1次朝鮮教育令的實施,因為當時的統監部的日本語教育政策和日本帝國朝鮮侵略強化政策而被關閉。所以,自1911年以後到日本強占期第二次朝鮮教育令修改的1932年,官公立學校的漢語教育暫時中斷。但這一時期韓國內部却出現了大批民族私立學校和私設的教育機關夜校,以幫助就業或開展民族救國運動為目的的私設教育機關,在這些私設教育機關內,漢語教育曾經踊躍地開展起來。

關鍵詞：開化期到1910年代，文獻資料，輿論資料，漢語教育狀況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6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